

“‘MAPS’ 앱 하나로 주식매매부터 투자정보·자산관리까지”

미래에셋, 주식앱 밖으로

내달부터 국내 MTS 명칭 ‘MAPS’ 홍콩서 선공개 후 국내에도 적용 상품·투자정보 등 플랫폼서 연결 홍콩 고객에 韓·美 주식시장 제공 리테일 비즈니스 확장 아닌 변곡점 개인 대상 자산관리 시장도 성장 국내선 기존 투자 지원 기능 고도화

“가격만 보는 앱이 아니라 고객이 시장을 이해하고 자신의 투자와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겸 글로벌전략가(GSO)

미래에셋증권이 세계 각지의 투자 기회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연결하는 구상을 국내 투자앱에 옮긴다. 홍콩에서 먼저 선보인 ‘MAPS’를 국내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의 새 이름으로 채택하고, 주식 매매 중심의 앱을 투자정보와 자산관리까지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넓힌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다음 달 1일부터 국내 MTS ‘M-S TOCK’의 명칭을 ‘MAPS’로 변경한다. MAPS는 ‘Mirae Asset Portfolio Service’의 약자다. 미래에셋증권 홍콩법인이 지난 6월 26일 현지에서 글로벌 투자 플랫폼으로 먼저 공개했다. 홍콩 출시 약 3개월 만에 국내 앱도 같은 브랜드를 사용하게 된다.

미래에셋이 바꾸려는 것은 앱의 이름만 이 아니다. 국내 MAPS는 기존 주식 거래 기능을 바탕으로 투자정보 탐색과 자산관리 서비스를 확대한다. 디지털자산 시세와 투자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전용 페이지도 마련할 계획이다. 투자자가 종목을 정한 뒤 주문을 넣기 위해 찾는 앱에서, 투자 대상을 살펴보고 자신의 자산을 관



리할 때도 이용하는 앱으로 역할을 넓혀겠다는 것이다.

이는 미래에셋이 추진하는 ‘미래에셋 3.0’ 전략이 고객에게 드러나는 변화이기도 하다. 해외 시장에서 확보한 상품과 투자정보, 디지털 서비스를 고객이 사용하는 플랫폼에서 연결하는 것이 전략의 한 축이다. 기존에는 각국 법인의 사업과 서비스가 현지 시장을 중심으로 운영됐다면, MAPS에서는 여러 시장의 투자 기회를 하나의 브랜드 아래 제공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홍콩 고객에게 韓주식까지…MAPS가 먼저 향한 시장

미래에셋증권 홍콩법인은 “투자자는 하나의 앱을 통해 홍콩·미국·한국 시장과 가상자산에 접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콩 고객이 현지 주식뿐 아니라 미국과 한국 주식 등 다른 시장의 상품도 살펴볼 수 있도록 설계한 멀티자산 플랫폼이다. 홍콩법인은 올해 4월 현지 금융당국으로부터 개인투자자 대상 디지털자산 거래 서비스 승인을 받았다.

홍콩을 첫 출시 시장으로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도 회사는 “아시아의 주요 금융

허브이자 디지털 자산 관련 제도가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홍콩은 국경을 넘나드는 자산관리 수요가 큰 시장이다. 홍콩법인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현지 자산·자산관리 업계의 지난해 운용자산은 약 5조4000억달러로 전년보다 20% 늘었다. 국경 간 관리 자산은 약 2조9000억달러에 달한다.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겸 글로벌전략가(GSO)도 지난 6월 홍콩 MAPS 공개 당시 “홍콩에 증권사를 세운 뒤 20년 만에 홍콩 리테일 고객에게 본격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순간”이라며 “이건 비즈니스의 확장이 아니라 비즈니스의 변곡점”이라고 말한 바 있다. 기관 중심이던 홍콩 사업을 개인 고객으로 넓히는 데 MAPS가 갖는 의미를 강조한 것이다.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 자산관리 시장도 성장하고 있다. 같은 자료에서 지난해 홍콩의 프라이빗뱅킹과 개인 자산관리 자산은 24% 증가했다. 여러 나라의 시장과 상품을 비교해 투자하는 고객에게 주식 거래와 투자정보, 자산관리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여지가 커진 셈이다. 미래에셋이 홍콩 MAPS를 특정 국가의 주식만



▲ 지난 6월 홍콩 현지에서 ‘MAPS’ 론칭 행사가 진행된 가운데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과 현지 직원들이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

◀ 홍콩 증권거래소 전경. /허정윤 기자

거래하는 앱보다 넓은 멀티자산 플랫폼으로 설계한 배경이다.

특히 한국 시장은 미래에셋이 홍콩 고객에게 제공하는 투자 대상 중 하나다. 국내 투자자에게 해외 주식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서 나아가 해외 투자자가 한국 주식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한 것이다. 홍콩 고객이 한국 기업에 투자하려면 거래 기능만큼이나 종목을 찾고 시장 정보를 이해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MAPS가 매매와 투자정보를 함께 다루는 이유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그동안 인도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에서 현지 시장에 맞춘 디지털 서비스를 구축해왔다. 이처럼 지역별로 축적한 상품과 서비스 역량을 글로벌 고객에게 어떻게 전달할지는 별도의 과제다. 홍콩에서 MAPS를 먼저 선보이고 국내 MTS까지 같은 브랜드로 바꾸는 것은 국가별 사업을 고객이 이용하는 앱을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첫 단계다.

◆국내 앱은 자산관리 확대…실제 거래 서비스는 별도

국내 MAPS는 기존 M-STOCK의 주식 거래와 자산 조회 기능을 바탕으로 투

자정보 탐색과 자산관리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디지털자산 시세와 투자정보도 앱에서 한곳에 모아 제공할 계획이다. 홍콩에서 여러 시장과 자산에 접근하는 플랫폼을 먼저 선보였다면, 국내에서는 기존 MTS의 투자 지원 기능을 고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같은 MAPS라는 이름을 쓰더라도 이용 가능한 서비스는 국가별로 다르다. 홍콩 MAPS는 디지털자산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국내 개편에서 제시된 디지털자산 기능은 시세와 투자정보 확인이다. 이번 명칭 변경에 홍콩·국내 계좌나 거래 서비스의 연동은 포함돼 있지 않다. 취급 가능한 자산과 상품 판매 규정, 인허가가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미래에셋이 홍콩에서 시작한 플랫폼 브랜드를 국내 주력 앱에 적용한 것은 확인된 변화다. 다음 평가 기준은 국내 고객이 투자정보와 자산관리 기능을 얼마나 유용하게 쓰는지다. 여러 시장의 상품과 서비스를 어디까지 연결할지는 이후의 과제로 남는다.

/홍콩=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metro

LG이노텍, 국내 자율주행 데이터 수집

美 ‘어플라이드 인튜이션’ 기업과 2028년까지 데이터 수집 차량 운영 모빌리티 센싱 솔루션 해외 수주 공략

LG이노텍이 국내 도로에서 자율주행 데이터를 수집해 차량의 주변 인식 성능을 높인다. 실제 주행 과정에서 확인된 센서의 취약점을 개선하고 해외 완성차 업체 수주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LG이노텍은 미국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기업 어플라이드 인튜이션과 국내에서 데이터 수집 차량을 운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 경기에서 운행을 시작해 2028년까지 데이터 수집 차량과 소프트웨어 개발 차량을 합쳐 약 20대로 늘릴 계획이다. 양사는 지난 3월 자율주행 센서와 소프트웨어의 공동 개발·검증을 위한 파트너십을 맺었다.

먼저 데이터 수집 차량에는 카메라·레이더 등이 탑재된다. 이들 센서는 주행 중 도로 상황과 차량 움직임, 주변 물체의 위치 등을 기록한다. LG이노텍은 수집한 데이터를 가상환경과 결합해 센서 성능을 검증할 계획이다. 특히 폭우 속 검은 차량이나 터널 출구의 강한 역광처럼 인식 오류가 발생하기 쉬운 상황을 분석해 성능



LG이노텍의 자율주행 센싱 데이터 수집 차량(Data Collection Vehicle)이 도심을 달리고 있다.

/LG이노텍

개선에 활용한다. 이 가운데 촬영된 보행자 얼굴과 차량 번호판은 비식별화한다.

LG이노텍은 서로 다른 센서의 정보를 결합하는 ‘센서 퓨전’ 기술도 고도화한다. 특정 센서의 인식 성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다른 센서의 정보를 활용해 정확도를 높이는 기술이다. 회사는 실주행 데이터를 바탕으로 센서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의 연동 성능을 개선할 계획이다.

LG이노텍은 자율주행용 부품 공급과 기술 협력도 확대하고 있다. 지난달 아마존의 자율주행 지회사 즉스(Zoox)에 로보택시용 카메라 모듈을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미국 아에바와 차세대 라이

다 공동 개발에 합의한 데 이어 올해 5월에는 카카오톡모빌리티와 자율주행 솔루션 개발 협약을 맺었다.

LG이노텍의 센싱 모듈을 장착한 어플라이드 인튜이션의 데이터 수집 차량은 미국에 이어 유럽과 일본에서도 운행될 예정이다. LG이노텍은 이들 지역에서 확보한 주행 데이터를 센서 성능 개선에 반영하고, 이를 북미·유럽 고객 수주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회사는 모빌리티 센싱 솔루션 매출을 2030년까지 2조원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



metro

피지컬AI·AI데이터센터 사업 속도 요청

>> 1면 “메가프로젝트 시작…”서 계속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피지컬AI와 AI데이터센터 사업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피지컬 AI는 공공 부문의 실증·활용을 대폭 확대해 시장 창출을 선도해야 한다”면서 “AI데이터센터의 경우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 기업 참여 등을 통해 지역 사회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메가프로젝트의 최종 성공 여부는 투자 규모가 아니라 국민의 삶이 실제로 얼마나 나아졌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주고 지역에는 다시 성장할 희망을, 국민에게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주는 프로젝트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예진 기자 syj@

한화솔루션, 전선 소재 친환경 전환 나서

>> 1면 ‘車·전력망 겨냥…’서 계속

장기간의 시험과 인증이 필요한 전선 소재의 특성을 고려해 고객사별 케이블 규격에 맞는 제품을 공동으로 개발하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한화솔루션은 전선 소재의 친환경 전환에도 나섰다. 지난 8월 폐플라스틱 재활용 원료를 50% 적용한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기반 전력 케이블 자켓 제품의 고객사 검증을 마치고 상업화

에 나섰다. 이 제품은 기존 제품과 동등한 수준의 전기·가공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1kg당 탄소배출량을 약 34% 줄였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석유화학업계는 고부가제품으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미래 사업에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글로벌 고객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다”며 “소재 기술을 고객사의 실제 제품에 적용하고 장기적인 공급 관계로 연결하는 작업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